

Bayer, 화학 · 합성수지 사업 매각

수익률 낮은 폴리머 부문은 분리 검토 ... 제약 · 농약에 역량 집중

독일의 Bayer Group이 화학 부문과 일부 합성수지 사업을 매각하거나 그룹에서 분리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상장하고, 제약 등 건강 부문과 농약 업종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가 금융권과 화학산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Bayer 경영감독 위원회는 11월1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그룹 재편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ayer은 폴리머 사업부문의 지분 가운데 1/3을 매각할 방침인데, 현재 소액주주로 참여중인 여러 관련기업들이 매각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합성수지 부문의 매각액만 약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화학업종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여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화학기업인 Degussa 정도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르너 베닝 회장은 그룹 재편계획을 11월1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도 베닝 회장이 화학, 합성수지, 건강, 농약 등 4개 부문 가운데 최소한 한 부문을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베닝 회장은 합성수지 부문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이익은 제약 등 건강 부문에 비해 훨씬 적고 아시아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해 매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yaer Group의 2002년 매출은 289억유로로 화학이 33억유로, 폴리머는 107억유로를 기록했다. Bayer은 현재 독일에서 화학은 BASF, 제약은 베링거인겔하임에 이어 각각 2위를 차지하고 있다.

Bayer Group 전체의 수익은 1999년 20억유로를 고비로 계속 줄어 2002년에는 10억6000만유로로 떨어졌다. 2003년 상반기 영업수익에서 화학과 폴리머 부문은 1억8300만유로에 그친 반면 비처방 의약품과 동물약품, 생명공학제품을 취급하는 건강 부문은 8억5900만유로, 농약은 4억7060만유로였다.

수익률에서도 화학과 합성수지 등은 3% 미만인 반면, 건강과 농약 부문은 15-2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약부문도 혈전용해제 <리포바이>나 <바이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10>